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

권 해 경 이 희 경[†]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낙관성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 465명을 대상으로 낙관성, 성취동기, 자아강도, 진로태도성숙,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낙관성, 성취동기, 자아강도는 진로태도성숙, 학교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낙관성과 성취동기, 자아강도의 설명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관계를 성취동기와 자아강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관계를 성취동기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낙관성과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척도인 목적성과의 관계만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강도는 낙관성과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척도 중 확신성과 준비성과의 관계만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검증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교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낙관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인 낙관성이 진로태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낙관성, 성취동기, 자아강도, 진로태도성숙, 학교생활만족도

[†] 교신저자 : 이 희 경,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2164-4296 E-mail : ahalee@catholic.ac.kr

낙관성(optimism)이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상황이나 결과들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말하며(김태환, 1988; 양돈규, 2001; Scheier & Carver, 1992), 개인의 적응과정,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심리적인 변인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낙관주의자들은 비관주의자들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을 적게 경험하고 보다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간다(Scheier, Carver & Bridges, 1994).

청년기의 낙관성은 학문적 성취와 직업적 적응과 관련된다(Seligman, 1998; Gillham, 2000). 낙관성은 SAT와 같은 능력 측정도구보다 더 대학에서의 수행을 정확하게 예언해 준다(Peterson & Barrett, 1987).

또한 Susan(2000)에 따르면, 낙관성은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방법에서 손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서 비관주의는 부인이나 과도한 음주와 같은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Scheier, Weinstraub와 Carver(1986)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낙관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낙관성은 어려운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재해석의 사용과 상황의 현실성을 수용하는 경향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들은 낙관주의자들이 비관주의자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Strutton과 Lumpkin(1992)은 낙관성이 작업환경에서의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낙관주의자들이 비관주의자들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

려는 것)를 하며, 비관주의자들은 회피적 대처(수면, 과식, 음주를 포함하는 현실도피 방법)의 사용한다고 하였다.

Aspinwall과 Taylor(1992)의 대처방식을 매개로 한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에서도 낙관적인 학생들이 비관적인 학생들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의 대처 경향인 적극적인 사고는 분노감정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긍정적인 감정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낙관주의자들의 대처반응들이 비관주의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낙관주의자들이 비관주의자들에 비해 문제 중심적 대처 전략을 좀 더 사용하고, 문제 중심적 대처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용, 유머, 긍정적인 재해석과 같은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Erikson(1968)은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는 직업과 관련된 것이다. 앞으로 갖게 될 직업은 청소년의 정체감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청소년기는 학교 장면에서 일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개인이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고 일의 세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Harre & Lamb, 1983). 따라서 최초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진로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개인의 진로 방향성을 파악하고, 또한 특정 집단의 진로태도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이기학, 1997). 일반적으로 개인마다 자신이 살아 온 환경과 직

업에 대한 지식 및 기대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태도와 성숙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장석민, 임두순, 송병민, 1991).

Lazarus(1979)가 제시한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의 일곱 가지 성격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아기능의 약화를 들 수 있는데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지나치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 둘째,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은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적극적으로 학습을 하지 못하여 문제해결능력 또한 부족하다. 셋째, 그들은 충분한 학습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기 유발이 결여되어 학습 부진, 학습 무능력 등의 형태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기 유발의 결여와 더불어 그들은 목적의식이 결핍되어 쉽게 좌절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자아강도와 성취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tkinson(1958)은 성취상황에서 개인에 노력을 결정하는 개인적, 상황적 요인에 관한 성취동기 이론을 발전시켰다. 성취동기 이론에 의하면,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은 진로선택 시 자아개발욕구보다는 현실적인 요인에 가치를 두는 태도를 보이지만,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 즉, 미래에 대한 구체적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진로를 선택할 때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확신 있는 진로태도를 보인다. 이는 성취동기가 학문이나 직업 등 개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그 특성이 나타나며(Spence, 1983), 특히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현실적인 포부수준을 가지고(Atkinson, 1958), 그러한 도전에 대해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며(McClelland, 1965),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고(박용현, 1976), 진로결정수준 또한 높다(이선영, 1997)는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매개변인인 자아강도(ego strength)는 자아의 통합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Barron, 1953), 이는 여러 가지 자아 기능 영역에서 자아 수행의 적절성 및 효율성, 특히 자아의 통합 기능의 정도를 나타낸다(Last & Weiss, 1976). 자아는 개인의 현실적응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청소년기에 강한 자아 정립이 요청됨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진로태도와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성취동기와 자아강도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양동규(2001)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낙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적 성향을 조사한 연구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선택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낙관성은 중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낙관성은 중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낙관성은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성취동기와 자아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낙관성은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남녀 성별에 따라 낙관성이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 소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01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하나의 척도 이상을 기재하지 않거나 무작위 응답을 한 36명의 자료를 제외시켰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251명(54.0%)이었고, 여자는 215명(46.0%)이었다.

측정 도구

낙관성 척도

Scheier와 Carver(1985)가 미래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로서의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8문항으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cheier, Carver와 Bridges가 1994년 개정된 삶의 정향 평가지(A Reevaluation of Life Orientation Test; LOT-R)로 김세희(2003)사용한 낙관주의 척도 수정판을 사용했다. LOT-R은 6개의 낙관성 측정문항과 실험참여자들이 낙관성 측정을 위한 질문지임을 인식하지 못하게끔 하는 4개의 fill item(문항 2, 5, 6, 8; 예: 나에게 있어 긴장을 푸는 것은 쉽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성 측정 6문항은 3개의 긍정적인 문항(문항 1, 4, 10; 예: 불확실한 때 나는 대체로 최상을 기대한다)과 3개의 부정적인 문항(문항 3, 7, 9; 예: 만약 나에게 어떤 것이 잘못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한다. 이 질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10점 미만에서 50점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LOT-R

의 Cronbach's α 는 .64로 나타났다.

성취동기 척도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는 황정혜(1993)가 제작한 성취동기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주 그렇지 않다'(1)부터 '아주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의 합계한 점수가 많을수록 성취동기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황정혜의 연구에서는 $\alpha=.86$ 의 신뢰도계수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창희(2001)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자가 자신의 학교생활과 일치하는 정도를 11개의 문항 각각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각 문항의 총합을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창희(2001)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alpha=.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자아강도 척도

자아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신행우와 김재환(1992)이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래 Barron(1953)에 의해 제작된 자아강도 척도(Ego Strength Scale; Es scale) 68문항 중 이장호와 김재환(1982)이 한국 상황에 맞는 48문항을 추출해 내었고, 이를 신행우와 김재환이 표준화하였다.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점되어 합산된 원점수 총점을 표준화된 규

준표에 따라 T점수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 척도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 측정 도구는 자아와 직업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진로태도 측정도구는 5개 하위 영역의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하위 영역은 결정성 차원(선호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확고성, 안정성 및 일관성), 목적성 차원(진로선택을 통한 가치 추구 내용, 욕구와 현실의 타협 정도), 확신성 차원(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정도,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 준비성 차원(진로 결정에 필요한 준비 및 계획, 진로에 대한 관심 및 참여), 독립성 차원(진로 선택의 주체성 정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74~.90(남학생의 경우 .74~.88, 여학생의 경우 .78~.90)의 범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낙관성 척도, 성취동기 척도, 자아강도 척도, 진로태도성숙 척도, 학교생활만족 척도,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서울·경기도 소재 4개 중학교의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설문은 각 학교의 자율학습 시간에 담당 선생님의 감독 하에 진행되었으며, 응답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분석방법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 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과 매개 모형 검증을 위해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결 과

낙관성이 각 변인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이 주요 변인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낙관성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진로태도성숙, 학교생활만족도, 성취동기, 자아강도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진로태도성숙.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F_{(1,463)}=80.747, p<.001$), 진로태도성숙의 14.9%를 설명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F_{(1,249)}=43.978, p<.001$), 진로태도성숙의 15.0%를 설명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F_{(1,213)}=35.553, p<.001$), 진로태도성숙의 14.4%를 설명하였다. 즉, 낙관적 성향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 낙관성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F_{(1,463)}=46.409, p<.001$), 학교생활만족도의 9.1%를 설명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낙관성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

표 1. 낙관성이 주요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예언변인	종속변인		B	β	R ²	F
낙관성	진로태도성숙	남	2.17	.387	.150	43.978***
		여	2.02	.379	.144	35.553***
		전체	2.10	.385	.149	80.747***
	학교생활만족도	남	.08	.329	.108	30.149***
		여	.08	.307	.094	22.032***
		전체	.08	.302	.091	46.409***
	성취동기	남	1.35	.395	.156	46.055***
		여	1.39	.463	.214	57.776***
	자아강도	남	.47	.260	.068	18.042***
여		.39	.196	.038	8.443**	

* $p < .05$, ** $p < .01$, *** $p < .001$

였으며($F_{(1,249)}=30.149$, $p < .001$), 학교생활만족도의 10.8%를 설명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낙관성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F_{(1,213)}=22.032$, $p < .001$), 학교생활만족도의 9.4%를 설명하였다. 즉, 낙관적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 남학생의 경우 낙관성은 성취동기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F_{(1,249)}=46.055$, $p < .001$), 성취동기의 15.6%를 설명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낙관성은 성취동기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F_{(1,213)}=57.776$, $p < .001$), 성취동기의 21.4%를 설명하였다. 즉, 낙관적 성향이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강도. 남학생의 경우 낙관성은 자아강도를 예측하였으며($F_{(1,249)}=18.042$, $p < .001$), 자아강도의 6.8%를 설명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낙관성은 자아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F_{(1,213)}=8.443$,

$p < .01$), 자아강도의 3.8%를 설명하였다. 즉, 낙관적 성향이 높을수록 자아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와 자아강도의 매개효과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취동기와 자아강도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hierarchical)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떤 변수가 매개 변수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신주연, 2003; Baron & Kenny, 1986). 첫째, 예언변인은 가정된 매개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예언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종속변인에 대한 예언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에 줄어든다. 즉, 예언변인과 종속변인의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예언변인의 효과(β 값)가 예언변인 및 매개변인을 예언변인 군으로 했을 때의 β 값보다 커야 한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단계별 회귀분석에 따라 각 매개변인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예언변인인 낙관성은 가정된 매개변인인 성취동기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r=.423, p<.01$), 낙관성은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r=.385, p<.01$)과 학교생활만족도($r=.302, p<.01$)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으므로, 첫째, 둘째 조건을 만족한다. 성취동기는 진로태도성숙($r=.461, p<.01$)과 학교생활만족도($r=.354, p<.01$)와 유의한 관계에 있으므로, 셋째 조건도 만족하였다. 넷째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낙관성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낙관성과 성취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하였다. 예언변인만 포함했을 때와 가정된 매개변인을 포함했을 때의 종속변인에 대한 예측 변인

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진로태도성숙에 있어서 낙관성만의 효과($\beta=461$)는 낙관성과 성취동기를 모두 포함한 모델에서의 낙관성의 효과($\beta=.363$)보다 컸고, 학교생활만족도에 있어서 낙관성만의 효과($\beta=.354$)는 낙관성과 성취동기를 모두 포함한 모델에서의 낙관성 효과($\beta=.275$)보다 컸다. 즉, 성취동기는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의 21.2%를 설명하였으며, 낙관성과 성취동기를 포함한 모델은 진로태도성숙의 25.6%를 설명하였다. 또한 낙관성은 학교생활만족도의 12.5%를 설명하였으며, 낙관성과 성취동기를 포함한 모델은 학교생활만족도의 15.3%를 설명하였다.

자아강도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예언변인인 낙관성은 가정된 매개변인인 자아 강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r=.236, p<.01$), 낙관성은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r=.385, p<.01$)과 학교생활만족도($r=.302, p<.01$)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으므로, 첫째, 둘째 조건을 만족한다. 자아강도는 진로태도성숙($r=.147,$

표 2.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종속변인	위계적/ 변인	β	R^2 (<i>adj-R²</i>)	ΔR^2	F
진로태도성숙	1. 낙관성	.461	.212 (.211)	.212	124.760***
	2. 낙관성	.363	.256 (.253)	.044	79.679***
	성취동기	.232			
학교생활만족도	1. 낙관성	.354	.125 (.123)	.125	66.215***
	2. 낙관성	.275	.153 (.150)	.028	41.839***
	성취동기	.185			

* $p<.05$, ** $p<.01$, *** $p<.001$

표 3. 자아강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종속변인	위계적/ 변인	β	R^2 (<i>adj-R</i> ²)	ΔR^2	F
진로태도성숙	1. 낙관성	.147	.022 (.020)	.022	10.273 ^{***}
	2. 낙관성	.060	.152 (.148)	.130	41.362 ^{***}
	자아강도	.371			
학교생활만족도	1. 낙관성	.144	.013 (.011)	.013	6.080 [*]
	2. 낙관성	.045	.093 (.089)	.080	23.692 ^{***}
	자아강도	.291			

* $p < .05$, ** $p < .01$, *** $p < .001$

$p < .01$)과 학교생활만족도($r = .114$, $p < .05$)와 유의한 관계에 있으므로, 셋째 조건도 만족하였다. 넷째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낙관성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낙관성과 자아강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예언변인만 포함했을 때와 가정된 매개변인을 포함했을 때의 종속변인에 대한 예측 변인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진로태도성숙에 있어서 낙관성의 효과($\beta = .147$)는 낙관성과 자아강도를 모두 포함한 모델에서의 효과($\beta = .060$)보다 컸고, 학교생활만족도에 있어서 낙관성만의 효과($\beta = .144$)는 낙관성과 자아강도를 모두 포함한 모델에서의 효과($\beta = .045$)보다 컸다. 즉, 자아강도는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의 2.2%를 설명하였으며, 낙관성과 자아강도를 포함한 모델은 진로태도성숙의 15.2%를 설명하였다. 또한 낙관성은 학교생활만족도의 1.3%를 설명하였으며, 낙관성과 자아강도를 포함한 모델은 학교생활만족도의 9.3%를 설명하였다.

남녀 각각의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차이

성별에 따른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누어 상관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만 대상으로 낙관성과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있어서의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 예언변인인 낙관성은 가정된 매개변인인 성취동기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r = .395$, $p < .001$), 낙관성은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r = .387$, $p < .001$)과 학교생활만족도($r = .329$, $p < .001$)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성취동기는 진로태도성숙($r = .418$, $p < .001$)과 학교생활만족도($r = .407$, $p < .001$)와도 유의한 관계에 있으므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척도인 목적성은 낙관성과 성취동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고 회귀식에서 제외되었다.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낙관성과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있어서의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 예언변인인 낙관성은 가정된 매개변인인 성취동기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r = .463$, $p < .001$), 낙관성은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r = .379$, $p < .001$)과 학교생

활만족도($r=.307, p<.001$)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성취동기는 진로태도성숙($r=.524, p<.001$)과 학교생활만족도($r=.300, p<.001$)와도 유의한 관계에 있으므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척도인 목적성은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낙관성과 성취동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고 회귀식에서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에 대한 예언변인의 영향은 매개를 통제 한 후에 줄어든다는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낙관성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낙관성과 성취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척도 중 매개효과 차이를 검증할 수 없었던 목적성은 제외시켰다. 예언변인만 포함했을 때와 가정된 매개변인을 포함했을 때의 종속변인에 대한 예언변인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낙관성만을 포

표 4. 남학생 집단에서 성취동기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종속변인	위계적/ 변인	β	R^2 (<i>adj-R²</i>)	ΔR^2	F
진로태도성숙	1. 낙관성	.418	.175 (.171)	.175	52.643***
	2. 낙관성	.314	.233 (.227)	.059	37.697***
	성취동기	.264			
결정성	1. 낙관성	.250	.062 (.059)	.062	16.560***
	2. 낙관성	.136	.132 (.125)	.069	18.814***
	성취동기	.287			
확신성	1. 낙관성	.308	.095 (.091)	.095	26.067***
	2. 낙관성	.193	.165 (.159)	.071	24.588***
	성취동기	.289			
준비성	1. 낙관성	.560	.314 (.311)	.314	113.880***
	2. 낙관성	.552	.314 (.309)	.000	56.802***
	성취동기	.020			
독립성	1. 낙관성	.341	.117 (.113)	.117	32.850***
	2. 낙관성	.289	.132 (.125)	.015	18.793***
	성취동기	.134			
학교생활만족도	1. 낙관성	.407	.166 (.163)	.166	49.542***
	2. 낙관성	.329	.199 (.193)	.033	30.859***
	성취동기	.199			

* $p<.05$, ** $p<.01$, *** $p<.001$

합한 회귀식에서는 낙관성의 β 값이 진로태도성숙에서는 .418, 하위척도인 결정성에서는 .250, 확신성에서는 .308, 준비성에서는 .560, 독립성에서는 .341,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407이었다. 그러나 낙관성과 성취동기를 모두 포함한 회귀식에서는 낙관성의 β 값이 진로태도성숙에서는 .314, 하위척도인 결정성에서는 .136, 확신성에서는 .193, 준비성에서는 .552, 독립성에서는 .289,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329이었다. 즉, 가정된 매개변인인 성취동기가 통제되었을 때 낙관성의 효과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성취동기는 낙관성

이 진로태도성숙과 하위척도인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준비성에 대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의 17.5%, 하위척도인 결정성의 6.2%, 확신성의 9.5%, 준비성의 31.4%, 독립성의 11.7%, 학교생활만족도의 16.6%를 설명하였으며, 낙관성과 성취동기를 포함한 모델은 진로태도성숙의 23.3%, 하위척도인 결정성의 13.2%, 확신성의 16.5%, 준비성의 31.4%, 독립성의 13.2%, 학교

표 5. 여학생 집단에서 성취동기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종속변인	위계적/ 변인	β	R^2 (<i>adj-R</i> ²)	ΔR^2	F
진로태도성숙	1. 낙관성	.524	.275 (.371)	.275	80.221***
	2. 낙관성	.444	.298 (.292)	.024	44.834***
	성취동기	.174			
결정성	1. 낙관성	.258	.067 (.062)	.067	15.158***
	2. 낙관성	.206	.077 (.068)	.010	8.764***
	성취동기	.113			
확신성	1. 낙관성	.441	.195 (.191)	.195	51.236***
	2. 낙관성	.305	.263 (.256)	.068	37.574***
	성취동기	.294			
준비성	1. 낙관성	.577	.332 (.329)	.332	105.599***
	2. 낙관성	.563	.333 (.327)	.001	52.722***
	성취동기	.030			
독립성	1. 낙관성	.367	.134 (.130)	.134	32.914***
	2. 낙관성	.333	.139 (.130)	.004	16.975***
	성취동기	.073			
학교생활만족도	1. 낙관성	.300	.090 (.086)	.090	20.944***
	2. 낙관성	.201	.126 (.118)	.036	15.189***
	성취동기	.214			

* $p < .05$, ** $p < .01$, *** $p < .001$

생활만족도의 19.9%를 설명하였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낙관성만을 포함한 회귀식에서는 낙관성의 β 값이 진로태도성숙에서는 .524, 하위척도인 결정성에서는 .258, 확신성에서는 .441, 준비성에서는 .577, 독립성에서는 .367,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300이었다. 그러나 낙관성과 성취동기를 모두 포함한 회귀식에서는 낙관성의 β 값이 진로태도성숙에서는 .444, 하위척도인 결정성에서는 .206, 확신성에서는 .305, 준비성에서는 .563, 독립성에서는 .333,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201이었다. 즉, 가정된 매개변인인 성취동기가 통제되었을 때 낙관성의 효과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성취동기는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과 하위척도인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준비성에 대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의 27.5%, 하위척도인 결정성의 6.7%, 확신성의 19.5%, 준비성의 33.2%, 독립성의 13.4%, 학교생활만족도의 9.0%를 설명하였으며, 낙관성과 성취동기를 포함한 모델은 진로태도성숙의 29.8%, 하위척도인 결정성의 7.7%, 확신성의 26.3%, 준비성의 33.3%, 독립성의 13.9%, 학교생활만족도의 12.6%를 설명하였다.

남녀 각각의 자아강도의 매개효과 차이

성별에 따른 자아강도의 매개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누어 상관을 분석한 결과, 예언변인인 낙관성은 가정된 매개변인인 자아강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r=.260, p<.001$), 낙관성은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r=.387, p<.001$)과 학교생활만족도($r=.329, p<.001$)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자아강

도는 진로태도성숙($r=.193, p<.001$)과 학교생활만족도($r=.159, p<.005$)와도 유의한 관계에 있으므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진로태도성숙 하위척도인 목적성은 낙관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고, 독립성은 자아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목적성과 독립성은 회귀식에서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에 대한 예언변인의 영향은 매개를 통제한 후에 줄어든다는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낙관성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낙관성과 자아강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언변인만 포함했을 때와 가정된 매개변인을 포함했을 때의 종속변인에 대한 예언변인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남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강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낙관성만을 포함한 회귀식에서는 낙관성의 β 값이 진로태도성숙에서는 .193, 하위척도인 결정성에서는 .221, 확신성에서는 .258, 준비성에서는 -.136,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159이었다. 그러나 낙관성과 성취동기를 모두 포함한 회귀식에서는 낙관성의 β 값이 진로태도성숙에서는 .099, 하위척도인 결정성에서는 .142, 확신성에서는 .175, 준비성에서는 -.212,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078이었다. 즉, 가정된 매개변인인 자아강도가 통제되었을 때 낙관성의 효과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자아강도는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척도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준비성에 대한 자아강도의 매개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

표 6. 남학생 집단에서 자아강도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종속변인	위계적/ 변인	β	R^2 (<i>adj-R²</i>)	ΔR^2	F
진로태도성숙	1. 낙관성	.193	.037 (.033)	.037	9.637**
	2. 낙관성	.099	.159 (.152)	.122	23.487***
	자아강도	.362			
결정성	1. 낙관성	.221	.049 (.045)	.049	12.780***
	2. 낙관성	.142	.135 (.128)	.86	19.325***
	자아강도	.304			
확신성	1. 낙관성	.258	.062 (.063)	.067	17.752***
	2. 낙관성	.175	.162 (.156)	.096	12.030***
	자아강도	.320			
준비성	1. 낙관성	-.136	.019 (.015)	.019	4.696*
	2. 낙관성	-.212	.099 (.092)	.080	13.603***
	자아강도	.294			
학교생활만족도	1. 낙관성	.159	.025 (.021)	.025	6.421*
	2. 낙관성	.078	.114 (.017)	.089	15.914***
	자아강도	.308			

* $p < .05$, ** $p < .01$, *** $p < .001$

을 때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의 3.7%, 하위척도인 결정성의 4.9%, 확신성의 6.2%, 준비성의 1.9%, 학교생활만족도의 2.5%를 설명하였으며,

낙관성과 자아강도를 포함한 모델은 진로태도성숙의 15.9%, 결정성의 13.5%, 확신성의 16.2%, 준비성의 9.9%, 학교생활만족도의 11.4%를 설명하

표 7. 여학생 집단에서 자아강도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종속변인	위계적/ 변인	β	R^2 (<i>adj-R²</i>)	ΔR^2	F	
확신성	1. 낙관성	.151	.023 (.018)	.023	4.932*	
	2. 낙관성	.068	.194 (.186)	.171	25.386***	
	자아강도	.422				
진로태도성숙	준비성	1. 낙관성	-.175	.031 (.026)	.031	6.675*
	2. 낙관성	-.241	.140 (.132)	.110	17.216***	
	자아강도	.338				

* $p < .05$, ** $p < .01$, *** $p < .001$

였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과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있어서의 자아강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는 자아강도와 유의미하지 않아서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고 회귀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척도인 확신성과 준비성은 매개 효과 검증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강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낙관성만을 포함한 회귀식에서는 낙관성의 β 값이 확신성에서는 .151, 준비성에서는 -.175였다. 그러나 낙관성과 자아강도를 모두 포함한 회귀식에서는 낙관성의 β 값이 확신성에서는 .068, 준비성에서는 -.241이었다. 확신성에서는 가정된 매개변인인 자아강도가 통제되었을 때 낙관성의 효과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자아강도는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척도인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준비성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척도인 확신성의 2.3%, 준비성의 3.1%를 설명하였으며, 낙관성과 자아강도를 포함한 모델은 확신성의 19.4%, 준비성의 14.0%를 설명하였다.

성별에 따른 낙관성, 성취동기, 자아강도,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 검증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낙관성, 성취동기, 자아강도,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학교생활만족도($t_{463}=2.454, p<.05$)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낙관성($t_{463}=-2.411, p<.05$)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 한편, 성취동기와 자아강도,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척도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에서는 남녀에 따른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취동기와 자아강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학교생활만족도, 성취동기, 자아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낙관성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낙관성의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낙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에 대한 성숙수준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및 만족수준이 높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낙관적일수록 진로에 대한 태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이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자아감을 가진 사람이 진로에 대한 태도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기학(1997)의 연구와 일치하며, 스스로 얼마나 낙관적으로 지각하는가가 학교생활을 가장 많이 설명해 준다고 밝힌 Ketsetzis, Ryan와 Adams(1998)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그들에게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확립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진다.

낙관성은 성취동기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남학생(15.6%)에 비해 여학생(21.4%)의 경우 낙관성이 성취동기에 대해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낙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도전에 대해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낙관적일수록 미래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동기화되어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과 목표에 도달하려 하는 성취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낙관적인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를 빨리 털어 내버리게 되고 긍정적인 정서로 일을 다시 시도하게 되어 동기와 성취감이 높게 된다는 Seligman(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낙관성은 자아강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여학생(19.6%)에 비해 남학생(26.0%)의 경우 낙관성이 자아강도에 대해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현실적응의 지표인 자아강도가 높고, 특히 남학생의 경우 낙관성은 자아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낙관성이 자아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Lucas(1993)와 Westbrook(1985)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적극적이며, 자기효능감이 높고 불안감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낙관성의 대처양식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서와 행동이 불안을 줄이면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성공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현실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낙관성이 성취동기를 매개로 진로태도성

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낙관성은 성취동기를 매개로 진로태도의 성숙수준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만족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이라는 변인이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취동기가 낙관성의 효과를 매개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대해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첫 번째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낙관성과 성취동기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성차를 고려해 봤을 때, 여학생의 경우 성취동기의 매개효과가 진로태도성숙에 큰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척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낙관성이 성취동기를 매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학생은 결정성에서 높은 성숙 수준을 보였고, 여학생은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결정성과 확신성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확신성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준비성의 경우 성취동기를 통제했을 때와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설명력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목적성의 경우 매개변인을 상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회귀식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들이 성취동기가 낮은 학생들보다 더 적극적

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에게 적절한 성취동기 수준을 설정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공경험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는 불안이 감소되어 더욱 만족스러운 진로 선택의 성숙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문선아, 2000).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낸 또 다른 결과 종속 변인인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성별에 따른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낙관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dd(1990)의 연구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학교에서의 성취와 관련되었으며, 동료의 거부는 학교를 호의적으로 지각하지 못하게 하고 거부되는 청소년들은 학기말 성취수준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성취동기를 매개로 했을 때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낙관성의 발달은 부모나 주변 중요한 타인들이 낙관성을 격려하고 강화해줌으로서 또는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 줌으로서 결정된다고 한다(Abramson et al., 2000; Gillham, 2000, Seligman, 199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와 가정, 사회는 청소년들이 낙관적인 정서와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과제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낙관성이 자아강도를 매개로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낙관성은 자아강도를 매개로 진

로태도의 성숙수준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만족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이라는 변인이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강도가 낙관성의 효과를 매개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자아강도의 매개효과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서만 진로태도성숙(결정성, 확신성, 준비성)과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자아강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자아강도의 매개효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점이 나타나는 원인은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준 성별에 따른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Gatter와 Sundland(1962)는 문화적인 성역할에 의해 남자가 자신의 취약성을 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여자가 자신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아강도라는 매개변인은 남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은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를 낙관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자아강도 수준을 높여야 하며, 그로 인해 진로태도에 대한 성숙수준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은 자아강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낙관성과 자아강도를 포함하는 모델에서 확신성과 준비성의 설명력이 큰 증가율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여학생에게는 진로에 대한 안정감 및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요인인 확신성과, 현명한 진로선택을 위한 능력 수준을 나타

내는 요인인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강도를 높여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학생은 낙관성에서, 남학생은 학교생활만족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낙관적 성향이 더 높다고 보고한 양동규(2001)와 배성애(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교생활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남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양상과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유동훈(1999)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만족도 연구에서 남학생이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 전체학교생활에서 여학생에 비해 그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이라는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청소년들의 중요 문제인 진로태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경험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낙관적 성향을 길러줌으로써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이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낙관성과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성취동기와 자아강도의 매개효과를 탐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낙관성과 성취동기, 자아강도, 진로태도성숙, 학교생활

만족도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모형에 대한 공변량 구조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요구된다. 더불어 본 연구의 모든 자료가 자기 보고 형식에 의해 얻어졌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들이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보고했을 수 있다. 특히 자아강도 척도는 MMPI 문항에서 표준화된 것으로 임상적인 측면이 강해서 중학생들에게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학생에게 적합한 자아강도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 김태환 (1988). 아동의 미래기대: 낙관성과 비관성.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아 (2000). 불안과 성취동기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용헌 (1976). 성취인의 심리. 서울: 배영사.
- 배성애 (1998).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들에 관한 탐색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행우, 김재환 (1992).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의 표준화 연구. 정신건강연구, 11, 187-214.
- 양동규 (2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 낙관성 및 해슬간의 상관성. 한국청소년연구: 청소년학연구, 8(1), 1-23.
- 유동훈 (1999). 초등학교 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학교생활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한중철 (1997). 고등학교의 성별 및 계열 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정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9(1), 335-349.
- 이선영 (1997). 초·중·고·대학생들의 집단간 학습유형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희 (2001). 집단따돌림과 학급응집성,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만족도 및 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민, 임두순, 송병민 (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교육개발원.
-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2001). 청소년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0). *Stress, coping, and well-being: Modeling a causal hypothesi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2). Modeling cognitive adaptat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89-1003.
- Atkinson, J. W. (1958). *Motives in fantasy, action, and society*. Princeton, NJ: Vand Nostand Co. Inc.
- Barron, F. (1953). An Ego-Strength Scale which reponce to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27-33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Gillham, J.(2000). *The Science of Optimism and Hope*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 Getter, H., & Sundland, D. M. (1962). The Barron Ego Strength Scale and psychotherapeutic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6, 342-346.
- Harre, R., & Lamb, R. (1983). *The encyclopedic dictionary of psych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Ladd, G. W. (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 1081-1100.
- Ketsetzis, M., Ryan, B. A., & Adams, G. R. (1998). Family Processes, parent-child interaction, and child c -haracteristics influencing school base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374-387.
- Last, V., & Weiss, A. A. (1976). Evaluation of Ego Strength Scale based on certain Rorschach variab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0, 57-66.
- Lucas, M. S. (1993). A validation of types of career indecision at a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40-446.
- McClelland, D. C. (1965).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D. Vand Nostrand Co.
- Peterson, C., & Barrett, L. C. (1987). Explanatory style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university fresh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03-607.
- Scheier, M. F., & Carver, C. S. (198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1078.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Weintraub, J. K., & Carver, C. S. (1986). Coping with stress: Divergent strategies of optim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57-1264.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2000). Optimism, pessim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ptimism and pessimism: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89-216.
- Seligman, M. (1998).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New York: Pocket Books.
- Seligman, M. E. P. (1998). Positive social science. *APA Monitor*, 29(4), 2, 5.
- Seligman, M. E. P., Reivich, K., Jaycox, L., & Gillham, J. (1995). *The optimistic child*. New York: Harper Perennial.
- Strutton, D., & Lumpkin, J. (1992).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coping strategies in the work environment. *Psychology Reports*, 71, 1179-1186.
- Weinsbrook. B. W., Stanford. E. E., O'Neal. P., Horne. D. F., Fleenor. J., & Garren. R. (1985). Predictive and construct validity of six experimental measure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338-355.
- 원 고 접 수 일 : 2004.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0. 22
계 재 결 정 일 : 2004. 11. 11

The Effect of Optimism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Degree of Satisfaction toward School - Mediated by Achievement Motivation and Ego Strength -

Hye-Kyung Kwon

Hee-Kyung Le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research examined the effects of optimism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degree of satisfaction toward school using achievement motivation and ego strength as parameters. For this, a survey was conducted on 465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questions on optimism, achievement motivation, ego strength,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degree of satisfaction toward school. The results revealed that optimism, achievement motivation, and ego strength were in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degree of satisfaction toward school, and each gender had different effects. In case of male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degree of satisfaction toward school are affected by optimism, and achievement motivation and ego strength act as parameters on such correlation. However, it was found that achievement motivation do not act as a parameter for purposefulness, which is a sub-element of optimism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that ego strength does not act as a parameter for optimism, purposefulness, and independence. As for female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degree of satisfaction toward school were found to be affected by optimism, and achievement motivation act as a parameter in this correlation, but such relationship did not exist for optimism and purposefulness. Measurement of differences of variables for each gender revealed that female students had high level of optimism and male students had high level degree of satisfaction toward school.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important, for discovering that optimism has different levels of correlation to career attitude and adaptation to school depending on the gender and according to parametric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go strength. Implica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were suggested.

Key Words : optimism, achievement motivation, ego strength, career attitude maturity, degree of satisfaction toward school